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가정부터 학교 밖까지 안전책 강구

전북자치경찰위, 1차 실무협의회서 아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의견 모아
주취자 보호 강화·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 논의 등 3가지 안전 협의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청·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현장 경찰관이 참여한 뉴거버넌스를 통한 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도 실무협의회는 경찰, 지자체,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타 시·도 및 달리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아동학대, 학교폭력,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교통안전, 자율방범, 인권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장경찰관까지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아동학대·학교폭력,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각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현안 이슈 안전으로 자치경찰

1호 사책인 아동안전 종합대책과 주취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 논의 등 3가지 안전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아동안전의 경우 아동의 24시간 생활주기를 분석해 가정, 학교, 학교 밖, 통학로, 동네 등 5가지 생활분야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교통사고를 집중 분석,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 원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학교 주변에 대한 썬데드사업(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과 함께, 일상 생활공간에서 불안감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는 전북도 정책플랫폼인 '소통대로' 및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해 방범용 CCTV, 보안등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한다.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도 녹색어머니·자율방범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감시자

가 된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아동학대 현장 공동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내실화를 추진, 아동의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기로 했다.
또한 주취자 보호조치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관의 응급의료센터 상주 근무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 등에 대해 도와 경찰청이 논의했다.
더불어 전화금융사기 최근 수법과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취약 대상자에 중점 홍보하는 방안 등에 논의하고, 민·관·경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 자치경찰 실무위원회는 여타 시·도와 달리 도민의 참여가 보장된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무겁게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청·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현장 경찰관이 참여한 뉴거버넌스를 통한 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고창 갯벌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

세계자연유산 확정

제주 화산섬 등 이은 국내 2번째 자연유산

반려 판정 받은 유산 철회 없이 첫 등재

도, 고인돌·무성서원 등 도내 4건 세계유산 보유



고창 갯벌이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사진은 고창 갯벌의 모습이다.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로서(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이동로)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6월 4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이 불충분하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반려'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 등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핵심지역(인천, 경기 등) 및 신청유산 인접 핵심지역(무안, 고흥, 여수)까지 유산구역

으로 편입하고, 기존 유산구역의 완충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 IUCN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위원국 설득을 통해 마침내 세계유산 등재 결과를 이뤄냈다.
우리나라가 반려 판정을 받은 유산을 철회하지 않고 한번에 등재하기는 처음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로 전북 문화유산 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우수성도 입증됐다"며 "익산 미륵사지 석탑, 고인돌, 무성서원 등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해 한국 체류 1번지로서 위상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옥, 미국으로 간다

전북대-조지아 엘리제이시와 협약
살림집 1동 세우... 고창캠서 제작

알제리와 베트남 등에 한옥 수출을 해 온 전북대학교가 이번엔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최근 미국 알파솔루션(Alpha Solution Inc.)과 업무협약 체결, 한옥 수출을 구체화했다.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국 조지아주 엘리제이시(Elizabethtown)에 한옥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한옥 살림집 1동을 건축한 뒤 미국 건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이곳에 본격적으로 한옥마을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한옥은 살림집으로 평면은 'ㄷ'자, 지붕은 팔작지붕에 겹처마 양식을 택했다. 기단은 장대석기단을 설치해 한국의 전통건축 양식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간은 우리나라의 전통양식을 따르되 미국인 생활을 고려해 입식으로 거실과 방, 누마루로 구성하기로 했다. 면적은 173m2(52평) 규모로 비교적 큰 규모다.
양 기관은 지금부터 제작을 시작해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한옥마을을 조성해 약 60여 채를 1차적으로 수출하고, 이어 리스베거스 수출 추진도 예정돼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는 이 건물을 고창캠에서 제작한 뒤 선박으로 운반, 미국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
김동원 총장은 "알파솔루션과의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저탄소·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지니고 있는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글로벌화를 통한 눈부신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대학이 보유한 한옥교육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한옥 건축 분야 R&D 구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남해경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한옥의 세계화로 결실을 맺어 기쁘고, 앞으로도 한옥의 우수한 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세계 각지에 진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